

Enoch – the man who walked with God: Sermon Notes

Title: “Enoch – the man who walked with God”

Scripture: Genesis 5:18-24, Hebrews 11:5

Date preached: August 21st 2022

Scripture: Genesis 5:18-24, Hebrews 11:5

18 Jared lived one hundred and sixty-two years, and begot Enoch. 19 After he begot Enoch, Jared lived eight hundred years, and had sons and daughters. 20 So all the days of Jared were nine hundred and sixty-two years; and he died. 21 Enoch lived sixty-five years, and begot Methuselah. 22 After he begot Methuselah, Enoch walked with God three hundred years, and had sons and daughters. 23 So all the days of Enoch were three hundred and sixty-five years. 24 And Enoch walked with God; and he *was not*, for God took him.

5 By faith Enoch was taken away so that he did not see death, “and was not found, because God had taken him”; for before he was taken he had this testimony, that he pleased God.

18 야렛은 162 세에 에녹을 낳았고. 19 그 후에도 800 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20 962 세에 죽었다. 21 에녹은 65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22-23 그 후에도 300 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365 세까지 살았다. 24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므로 그가 사라지고 말았다.

5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 갔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는 옮겨 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Introduction

People from every culture are drawn to heroic figures. In the past these heroes were often mythical figures that appeared in epic poems or books. We might think for example of Hercules, Achilles or Jason, all of whom were Greek heroes. For my ancestors in the British isles we had the stories of Beowulf, the slayer of monsters and dragons and King Arthur and the round table. Today people are still attracted to the heroic. Popular culture is awash with the adventures of Heroes. Even if you have little interest in contemporary movies you cannot have failed to notice the proliferation of superhero movies.

When I was a child I can remember watching Superman but that was all. Today superhero movies dominate at the box office and it seems like almost every week a new superhero character is unleashed. The question really we should ask is what is the appeal of the hero?

I think the answer is surprisingly simple.

In times of uncertainty, trouble or turmoil people look for someone who is able to take on and successfully deal with trouble. Subconsciously we all wish that there was someone who could solve our crises or help defeat our enemies. How much simpler it would be if we could send an invincible warrior like Thor to kick the Russians out of Ukraine.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영웅적인 인물에게 끌립니다. 과거에 이 영웅들은 종종 서사시나 책에 등장하는 신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헤라클레스, 아킬레우스 또는 이아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 영웅이었습니다. 영국 제도의 제 조상들에게는

괴물과 용의 학살자인 베오울프, 아더 왕과 원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영웅에게 끌립니다. 대중 문화는 영웅의 모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대영화에 대한 관심이 적더라도 슈퍼히어로 영화의 확산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어렸을 때 슈퍼맨을 본 기억이 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날 슈퍼히어로 영화는 박스오피스를 장악하고 있으며 거의 매주 새로운 슈퍼히어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물어야 할 질문은 영웅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위기를 해결하거나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토르와 같은 무적의 전사를 보내 러시아인을 우크라이나에서 쫓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더 간단할까요?

The bible

The bible is a book full of the exploits of heroic figures. Some of the heroes were mighty men of valour. Others were men and women who were courageous, dignified or resolute in times of trouble. The big difference between the heroes of the bible and the heroes of today is where the attention or glory is deflected. Heroes of today are typically selfish and self-serving. They may help others but often they do it to promote themselves and to draw people's attention to their heroism. True biblical heroes were empowered by God and their acts were intended to reflect the glory on God not themselves.

I recently read an interesting book by the American pastor John MacArthur. The book's title was "Twelve unlikely heroes." The book details how God throughout biblical history often took very ordinary or at times unlikely people and used them in mighty ways for His glory. One person included in the book is the prophet Jonah. We know his story well from our own recent studies. When we first met him he was rebellious, selfish, lacking in courage and unloving. In all respects hardly a heroic figure. And yet God used him to impact people's lives and change the course of history. The same could be said for Joseph. When we first meet him in the book of Genesis he is spoiled and selfish. Through his many trials and harrowing experiences he would be transformed. Eventually guided by God he would go on to save many lives. Pastor MacArthur's book highlights how God is often in the business of making unlikely heroes. In our sermon today we will consider one such unlikely hero; Enoch.

I suppose we should begin by defining our terms. What exactly is a hero? It's a term that is often used, and I would say frequently misused today. It's used so often in fact that in some ways its significance is being lost. Just about anyone can be a hero, sports players, teachers, parents, medical workers, firefighters, police officers or those serving in the military. In some cases the description of hero is warranted. In other cases I would say it is a misuse of the term. How does the dictionary define a hero. Let's look at two dictionary definitions.

A person who is admired for having done something very brave or having achieved something great: (Cambridge dictionary)

A person noted for courageous acts or nobility of character. Someone who, in the opinion of others, has special achievements, abilities, or personal qualities and is regarded as a role model or ideal. (Dictionary.com)

For me, real heroes are people whose efforts and sacrifices save lives, alter destinies and change history. To really qualify as a hero you need to have done something that puts you on a higher level to almost anyone else. So today as we look at around us who might qualify as a hero? A firefighter

who runs into a burning building to save someone. That's heroic. A soldier who goes into the line of fire to rescue an injured comrade. That's heroic. A missionary who risks imprisonment or even death to preach the gospel. That's heroic.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what makes someone a hero.

The word "hero" does not appear in the New Testament. However the 11th chapter of Hebrews lists saints who had great faith. We commonly refer to these men and women as "heroes of the faith." What makes these believers heroes? Why are they forever memorialised in this chapter of the bible? They are regarded as heroes for two reasons. Firstly they believed in the Lord, not just for salvation but for every aspect of life. They sought to honour God even when it was difficult or challenging to do so. Secondly they chose to trust God's promises rather than pursuing the temporary pleasures of sin.

So a biblical hero can be defined as someone who trusts in God for all things, someone who has real faith. And a person who is committed and obedient to what God wants. Someone who is faithful. Our subject today Enoch was a true biblical hero. A man of both faith and commitment. We will be looking at three things today. Firstly we will look at Enoch in the bible. We will then consider the world in Enoch's time. Finally we will look at Enoch's legacy. His walking with God. Before we consider these things let us pray.

성경은 영웅적 인물들의 공로로 가득 찬 책이다. 영웅 중 일부는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곤경에 처했을 때 용감하고 위엄이 있거나 단호한 남녀였습니다. 성경의 영웅들과 오늘날의 영웅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목이나 영광이 빛나가는 곳입니다. 오늘날의 영웅은 일반적으로 이기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만 종종 그들은 자신을 홍보하고 사람들의 주의를 그들의 영웅적 행동으로 이끌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진정한 성경적 영웅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며 그들의 행위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최근에 미국 목사인 John MacArthur의 흥미로운 책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은 "12 명의 의외의 영웅"이었다. 이 책은 성경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이 어떻게 종종 아주 평범하거나 때로는 있을 법하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가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강력한 방법으로 사용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책에 포함된 한 사람은 선지자 요나입니다. 우리는 최근 연구를 통해 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반항적이고 이기적이고 용기가 없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영웅적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버릇없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시련과 비참한 경험을 통해 변화될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많은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MacArthur 목사의 책은 하나님이 종종 있을 법하지 않은 영웅을 만드시는 일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에서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 영웅을 고려할 것입니다. 에녹. 용어 정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웅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데, 오늘날 자주 오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너무 자주 사용되어 어떤 면에서는 그 중요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영웅, 스포츠 선수, 교사, 부모, 의료 종사자, 소방관, 경찰관 또는 군복무 중인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른 경우에 나는 그것이 용어의 오용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전은 영웅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두 가지 사전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용감한 일을 하거나 위대한 일을 성취하여 존경받는 사람: (Cambridge 사전) 용감한 행동이나 품위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한 업적, 능력 또는 개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고 롤 모델이

나 이상으로 간주되는 사람. (Dictionary.com) 나에게 진정한 영웅은 노력과 희생이 생명을 구하고 운명을 바꾸며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영웅의 자격을 갖추려면 거의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영웅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인지 살펴볼까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불타는 건물에 뛰어드는 소방관. 영웅적입니다. 부상당한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전선에 뛰어드는 군인. 영웅적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선교사. 영웅적입니다. 성경은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웅”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 장은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남성과 여성을 “신앙의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 이 신자들을 영웅으로 만드는가? 왜 그들은 성경의 이 장에서 영원히 기념되니까? 그들은 두 가지 이유로 영웅으로 간주됩니다. 첫째,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거나 어려운 경우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영웅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충실한 사람. 오늘 우리의 주제에 녹은 진정한 성경적 영웅이었습니다. 믿음과 헌신을 겸비한 사람.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에녹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에녹 시대의 세상을 고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의 유산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Enoch in the bible

What does the bible tell us about Enoch? He appears in just a handful of verses and much of his life remains shrouded in mystery. This has led many over the centuries to create a fictional side story to accompany Enoch. Whilst it may be tempting to speculate on what Enoch did we won't be doing that today. We will confine our investigation to what the bible reveals.

Let's begin by highlighting where Enoch appears in the bible. Actually, there are four people in the bible with the name Enoch. The Enoch that we are interested in appears in 5 books of the bible (Genesis 5:18-24, 1 Chronicles 1:3, Luke 3:37, Hebrews 11:5-6, Jude 1:14-15). Two Old Testament books and three New Testament books. In the Old Testament he appears in lists or genealogies. These lists in Hebrew are known as the *toledot*. Many people find these lists a bit dull but they do provide for us an important record of the genetic line. They tell us who came from whom. Let me read part of the *toledot* that we get in Genesis chapter 5. Listen out for the mention of Enoch.

성경은 에녹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단지 소수의 구절에 나타나며 그의 삶의 많은 부분이 신비에 싸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세기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Enoch 와 함께 할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에녹이 무엇을 했는지 추측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밝히는 것으로 조사를 제한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에녹이 나오는 곳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네 명 나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에녹은 성경 5 권에 나옵니다(창세기 5:18-24, 대상 1:3, 누가복음 3:37, 히브리서 11:5-6, 유 1:14-15). 구약성경 2 권과 신약성경 3 권. 구약에서 그는 목록이나 족보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히브리어 목록을 톨레도트(toledot)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록이 다소 둔하다고 생각하지만 유전 계통에 대한 중요한 기록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누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알려줍니다. 창세기 5 장에 나오는 톨레도트의 일부를 읽겠습니다. 에녹에 대한 언급을 들어 보십시오.

18 Jared lived one hundred and sixty-two years, and begot Enoch. 19 After he begot Enoch, Jared lived eight hundred years, and had sons and daughters. 20 So all the days of Jared were nine hundred and sixty-two years; and he died. 21 Enoch lived sixty-five years, and begot Methuselah. 22 After he begot Methuselah, Enoch walked with God three hundred years, and had sons and daughters. 23 So all the days of Enoch were three hundred and sixty-five years. 24 And Enoch walked with God; and he *was* not, for God took him.

Chapter 5 of Genesis outlines the generations from Adam to Noah and his three sons. Enoch was the seventh generation from Adam and was born 622 years after God created the world. As a side note also we should remember that due to the long life spans people enjoyed in those days Enoch was alive at the same time as Adam and the generations that came before him.

We learn that Enoch's father was Jared. He had Enoch when he was 162 years of age and went on to live until he was 962. Enoch was 65 when he had his son Methuselah. The name Methuselah is an interesting one. It either means either "man of a dart (missile) or javelin" or "when he is dead, it shall come."

That's very interesting because when we look at his life span we note that he died just before God judged the wickedness of man with the global flood. Anyway it was after the birth of Methuselah that something seems to have changed within Enoch.

We might assume that prior to this he was a good and godly man but following the birth of his son his relationship with God seems to have intensified. It appears that Enoch began to walk with God in a special, or particular way after the birth of Methuselah. Most likely this is because he had an awareness from God that judgment was coming.

We are then told that Enoch "walked with God" for 300 years. During this he was blessed with further children. At the age of 365 something very interesting, and almost unique happened to him. Without dying God simply took him up to heaven. The word used in the original Hebrew to describe this "taking up" is *laquach*. It describes an act of "snatching, seizing or taking up." It is the same idea that we get with the rapture. At the rapture there will be a whole new generation of Enoch's, those who will not taste death because they are "snatched away" by God. The only other person who the bible records as being whisked or snatched away to heaven whilst still alive was the prophet Elijah (2 Kings 2). So what made Enoch great? Why did God snatch him up? Let us consider the world at the time of Enoch.

창세기 5 장은 아담에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까지의 세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 대손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지 622 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부수적으로 우리는 또한 그 당시 사람들이 누렸던 긴 수명으로 인해 에녹이 아담과 그 이전 세대와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녹의 아버지가 야벳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162 세에 에녹을 가졌고 962 세까지 살았습니다. 에녹은 65 세에 아들 므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므두셀라라는 이름은 흥미로운 이름입니다. 그것은 "다트(미사일) 또는 창 던지기의 사람" 또는 "그가 죽었을 때 올 것이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의 수명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홍수로 인간의 사악함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그가 죽었다는 것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므두셀라의 탄생 이후에 에녹 내부에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선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아들을 낳은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 같습니다. 에녹은 므두셀라가 태어난 후 특별하거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녹이 300 년 동안 “하느님과 함께 걸었다”고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더 많은 자녀를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365 세의 나이에 매우 흥미롭고 거의 독특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고 단순히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을 “올리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원래 히브리어로 사용된 단어는 라쿠아흐입니다. 그것은 "강탈, 압수 또는 빼앗는" 행위를 설명합니다. 휴거와 같은 생각입니다. 휴거 시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에녹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끌어 가셨”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 성경에서 채찍질을 당하거나 하늘로 끌려간 것으로 기록된 유일한 다른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왕하 2 장). 그렇다면 무엇이 에녹을 위대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왜 그를 붙잡아 놓으셨습니까? 에녹 시대의 세상을 생각해 봅시다.

The world of Enoch

Enoch lived in a world very different to ours. Although I often highlight how radically different things are today compared to biblical times this is especially true of the pre-flood world. The earth had not yet been destroyed and reassembled by a global catastrophe. At this time a great canopy of water provided a protective screen for the earth. This kept the harmful effects of the sun's ultra-violet radiation from damaging living things. It also maintained a green house type environment for those living on earth. There were no extremes of temperature and plants and animals could thrive. Imagine living in a nice year long semi-tropical climate. No harsh icy winters or burningly hot summers.

It should not surprise us that living in these conditions meant that people enjoyed very long life spans. As you read the bible you cannot fail to notice the difference between life spans before and after the flood. The average lifespan of the patriarchs who lived before the Flood was 912 years. After the Flood lifespans began declining. Noah's son Shem lived 600 years; his grandson 438 years. Five generations after Noah, lifespans had declined to around the 200s. Abraham, who was 10 generations after Noah, lived to be “only” 175.

Actually living long lives can be both a curse and a blessing. On the positive side it enabled the people in that era to develop intellectually and culturally. Living a long time enables you to learn and grow from trial, error and accumulated wisdom. I consider myself a very average guitar player. But just imagine how much better I could be if I had 300 years to study and learn.

However living for a very long time can also be a curse. Knowledge can puff us up and make us think we can overcome any difficulties. It can also lead to us thinking we can do without God. It is also difficult to resist temptation for very long periods of time. We find it hard living in a world of temptation for 70 or 80 years imagine the pressures of 700 or 800 years! This is of course one of the reasons that Enoch's story is so remarkable. He was living in a world of corruption and decay and yet he managed to resist and remain faithful to God.

All those who lived in the pre-flood world had been corrupted by sin. The effects of Adam and Eve's rebellion was instant. Whilst it is true that the corruption took some time to take effect it was not long before evil was seen. We know that Adam's and Eve's son Cain killed his brother Abel. This was just the start of the wickedness that spread through God's once perfect creation.

It's interesting for us to contrast two men who lived at this time. One of Cain's descendants was Lamech, he was the father of Noah. He was born 252 years after Enoch, but Enoch was of course still alive. The two men were very different. Enoch walked with God. Lamech walked with the evil

one. He openly boasted of both murder and polygamy (Genesis 4:23). However we should not only single out Lamech. His rebellious attitude to God was simply representative of nearly all the people living at that time. It resulted in God eventually passing judgement on His creation. In Genesis 6 we read the following;

에녹은 우리와 매우 다른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종종 성경 시대와 비교하여 오늘날의 상황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 강조하지만 이것은 특히 홍수 이전의 세계에 해당됩니다. 지구는 아직 전 세계적인 대재앙으로 파괴되고 재조립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 거대한 물 덮개가 땅을 보호하는 방벽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태양의 자외선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이 생명체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온실 형태의 환경을 유지했습니다. 극한의 온도가 없었고 식물과 동물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일년 내내 좋은 반열대 기후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혹독한 얼음 겨울이나 뜨겁게 뜨거운 여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는 것이 사람들이 매우 긴 수명을 즐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홍수 전과 후의 수명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살았던 족장의 평균 수명은 912 세였습니다. 홍수 이후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은 600 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손자 438 년. 노아 이후 5 세대에 걸쳐 수명은 200 대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아의 10 대 후손인 아브라함은 “오직” 175 세까지 살았습니다. 실제로 장수는 저주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지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시행착오와 축적된 지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 나는 스스로를 매우 평범한 기타 연주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00 년 동안 공부하고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아주 오래 사는 것도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유혹에 저항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70 년이나 80 년 동안 유혹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700 년이나 800 년의 압력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물론 에녹의 이야기가 놀라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는 부패와 부패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저항하고 신실했습니다. 홍수 이전의 말썽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죄로 인해 부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반역의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부패가 효력을 발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악이 나타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그의 형제 아벨을 죽였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한때 완전했던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 퍼진 사악함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두 남자를 대조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있습니다. 그는 에녹보다 252 년 뒤에 태어났지만 에녹은 물론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너무 달랐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라멕은 악한 자와 동행했습니다. 그는 살인과 일부다처제를 공개적으로 자랑했습니다(창세기 4:23). 그러나 우리는 라멕만 뽑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반역적인 태도는 그 당시에 살았던 거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6 장에서 우리는 다음을 읽습니다.

5 Then the LORD saw that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in the earth, and *that* every intent of the thoughts of his heart *was* only evil continually. 6 And the LORD was sorry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He was grieved in His heart. 7 So the LORD said, “I will destroy man whom I have created from the face of the earth, both man and beast, creeping thing and birds of the air, for I am sorry that I have made them.” (Genesis 6:5-7)

When we look around at the world today it is not hard to see the presence of evil. Much of the world's cultural output is corrupt and filthy. The internet is used to carry horrendous images. War, violence, murder, prostitution, child sexual abuse and human trafficking proliferate around the world. God would be fully justified in again destroying His creation. And yet in His grace He delays. So when we think about our wretched and evil world that God at least for now spares how much worse must things have been in the world before the flood?

This was a world in which human wickedness was great. A time in which men and women focused only on evil all the time. One man at least was different. Despite the pressures and temptations to be like his neighbours Enoch resisted. This was what made him a special, unlikely hero.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악의 존재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계의 문화 산출물의 대부분은 부패하고 더럽습니다. 인터넷은 끔찍한 이미지를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쟁, 폭력, 살인, 매춘, 아동 성적 학대 및 인신매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다시 파괴하는 데 완전히 정당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은혜로 지체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적어도 당분간은 우리의 비참하고 악한 세상을 생각할 때 홍수 이전의 세상은 얼마나 더 나빴을 것입니까? 인간의 사악함이 만연한 세상이었다. 남자와 여자가 늘 악에만 집중하던 시대. 적어도 한 사람은 달랐다. 이웃 사람들 처럼 되려는 압력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저항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특별하고 있을 법하지 않은 영웅으로 만든 이유였습니다.

A man who walked with God

What made Enoch such a special man? A man that God blessed by relieving him of the burden of going through a natural death. Sadly the exact details surrounding Enoch are never revealed to us in scripture. We are not given a list of his acts or accomplishments. What we are told twice in Genesis 5 is that “he walked with God.” It is something that is also said of Noah (Gen 6:9). To “walk with God” is a biblical expression that describes a life of close fellowship and obedience to God. It does not refer to a one off act but rather a lifestyle or a way of living. Another way to express this idea is to say that Enoch lived in a way that pleased God. This is how Enoch is remembered in the “hall of faith” in Hebrews. A man who pleased God. That should be every Christian's ambition. We should all desire to live in ways that please our Lord and saviour. In what ways did Enoch please God?

As I said we are not given specific details about Enoch but generally we could say that to walk with God means the following.

- 1 God and the things that please Him have priority in your life.
- 2 You desire to see things as God does. You are in complete agreement with Him.
- 3 You want to honour Him with your thoughts, deeds and acts.
- 4 You want to put aside your own selfish desires.
- 5 You are obedient to Gods laws and commands.
- 6 You want to live in close and intimate communion with God.

It may be easier to think about walking with God when we imagine actually going for a walk with a friend. What happens when we walk with someone? Imagine that you and a close friend are enjoying a walk together in the park. You are in close proximity. You talk, laugh, listen, and share intimate things. Your attention is focused on this person to the exclusion of almost everything else. You notice the flowers or trees around you, but only to point them out to your companion. You want to share the beauty around you with your friend. You are in harmony, and you both enjoy the peaceful camaraderie. This is an illustration of what it is like to be walking with God.

Too many Christians are content with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with God. They are happy to see Him on a Sunday but for the rest of the week they don't think of Him often. This is not truly walking with God.

Other Christians want to walk with God but cannot do so without being distracted by the things of this world. Imagine again walking in the park with a close friend. Now picture that your friend has a recorder and spends the whole walk blowing it. It would hardly be an enjoyable experience. But that is how many Christians are with their walk with God. The things of this world, entertainments, bad habits. Sins or unhealthy human relationships damage the intimacy of the walk.

This was not the case with Enoch. His walk was enriching to Him, and pleasing to God. This is not of course to say that Enoch was perfect. Sin has tainted every human being after the fall. It does however tell us something about his character and nature. He was able to focus on God and put the cares and worries of the world to one side. As we said before he lived during evil and wicked times but this did not distract him. He maintained his faith in God and lived a life of integrity and commitment to God. It is for this reason we remember him as an unlikely hero.

에녹이 것처럼 특별한 사람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슬프게도 에녹을 둘러싼 정확한 세부 사항은 성경에서 결코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행동이나 업적 목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5 장에서 우리가 두 번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에 대해서도 말한 것입니다(창 6:9).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친밀한 교제와 순종의 삶을 묘사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것은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생활 방식이나 생활 방식을 나타냅니다. 이 생각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전당”에서 기억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야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과 구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에녹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당신의 삶에서 우선시됩니다. 2 당신은 사물을 하나님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분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3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과 행동으로 그분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4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싶어합니다. 5 당신은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순종합니다. 6 당신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친구와 함께 산책을 간다고 상상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걸을 때 무슨 일이? 당신과 가까운 친구가 공원에서 함께 산책을 즐기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야기하고, 웃고, 듣고, 친밀한 것들을 공유합니다. 당신의 주의를 다른 거의 모든 것을 제외하고 이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당신은 당신 주위에 있는 꽃이나 나무를 알아차리지만, 단지 당신의 동반자에게 그것을 지적할 뿐입니다. 주변의 아름다움을 친구와 공유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둘 다 평화로운 동료애를 즐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장거리 관계에 만족합니다. 그들은 일요일에 그분을 뵈게 되어 기뻐했지만 남은 주 동안 그분을 자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에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친한 친구와 함께 공원을 다시 걷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친구가 녹음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불면서

걸는 내내 시간을 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즐거운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오락, 나쁜 습관들. 죄나 건강에 해로운 인간 관계는 걷기의 친밀감을 손상시킵니다. 에녹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보는 그에게 부요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느니라. 물론 이것은 에녹이 완벽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타락 후에 모든 인간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성격과 본성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해 줍니다. 그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그는 악하고 사악한 시대에 살았지만 이것이 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했고 하나님께 성실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를 의외의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Lessons for us to learn from Enoch

Let us conclude by thinking about what we can learn about Enoch. I have three comments to make.

1 The importance of continual intimacy with God

In truth we do not know a great deal about Enoch. Really all we know is that he walked with God and that he was taken up by God without physically dying. But even with the little we know we can make some judgements on his character. We know for example that he recognised the importance of living in a way that pleased God. What about our walk with God? Do we really appreciate the importance of continual intimacy with God? We all stumble from time to time but our goal must be to live a life that is pleasing to God. We can only do this when He is of central importance in our lives and being close to Him is our number one priority.

사실 우리는 에녹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졌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성품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감의 중요성을 정말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때때로 넘어지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분과 가까이 있는 것이 최우선 순위일 때에만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2 The necessity of walking with God

Enoch is not described as occasionally visiting with God. Or of enjoying positive meetings with God. That he walked with God tells us that his whole life was built around his faith and commitment to the Lord. His faith was not a hobby or a pastime. It shaped his very life. Many Christians today are lukewarm or nominal at best. They are half-hearted about prayer, attending church and fellow-shiping with other believers. We should learn from Enoch that our whole existence is to be shaped and guided by our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에녹은 때때로 하나님을 방문한 것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만남을 즐기는 것.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의 삶 전체가 그의 믿음과 주님에 대한 헌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의 믿음은 취미나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 자체를 형성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껏해야 미지근하거나 명목상입니다. 그들은 기도, 교회 출석,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에 대해 마음이 아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체 존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의해 형성되고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에녹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3 The importance of positively influencing those around you

Faith is a personal thing. By that I mean that the faith you have in God cannot be passed on to someone else. Your faith walk is uniquely yours. However faith is not to remain a personal thing. We are here to positively influence those around us. This influence should be seen in our characters. We should be trustworthy, honest, dependable, loving and hard working. It should be seen in our words. The things that we say should aim to encourage and lift up rather than put down or hurt. It should also be seen in our actions. Do we seek to help or love others rather than being selfish.

Now we do not know very much about the life of Enoch. But the fact that he pleased God suggests strongly to me that he shared his faith and encouraged those around him. We must assume that his children were positively impacted by observing him. We can only hope that they went on to live lives that were pleasing to God. This too is our calling. When people look at our lives and the footprint we leave what will they think? Let us seek to positively influence those around us.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남에게 전가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행보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개인적인 것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향은 우리의 성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고, 사랑스럽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 말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내려놓거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들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이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랑하려고 합니까? 이제 우리는 에녹의 생애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사실은 그가 믿음을 공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그를 관찰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소명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남긴 발자국을 볼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합시다.

